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1)</sup>

(가)

외할머니 마당에 올라온 **해일(海溢)**엔요.  
예원 살 나이에 스물한 살 얼굴을 한  
그리고 천 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량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생솔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해일 속 신량을 마중 나와  
하늘 안 천 길 깊이 묻었던 뉘 파내서  
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다시 또 파,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불 밝혀선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주절히 주절히 매어달고, 할머니는

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魂身) 앞  
열아홉 살 첫사랑쩍 얼굴을 하시고  
-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나)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 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  
더는 알 수 없는 빛도 스며서는  
손 닿지 않은 데가 걸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흰하다

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뜬어진 채 쏟아졌었다  
그 하늘을 어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또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것  
들려서 내려온

신(神)과 신(神)의 얼굴만 같고  
어스름녘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영글어 올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어라도 보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 장석남, 「살구꽃」 -

(다)

‘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흔히 ‘마음=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1: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 작용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행인 ‘그대 노 저어 오오’도 실체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읽히게 된다. 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가)를 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량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 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량’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며,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해 간다.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神)’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다. 결국 시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차원을 넘어 층위가 다른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 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깊은 울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 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시 43-45번

44. [A]를 바탕으로 (가)의 **해일**과 (나)의 **살구꽃**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일’은 ‘풀밭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가는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② ‘해일’로 인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 되는 것으로 보아, ‘해일’에는 영원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씩 쳐다보던’ 시선에서 비롯되는 상승의 심상과 ‘내려온’에서 비롯되는 하강의 심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해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살구꽃’은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내어,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⑤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의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만남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군.

45. (다)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굵은 실밥, 자국들’은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며 주제 의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뜯어진’, ‘폐매는가’, ‘폐매 감친’과 같은 시어를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흰 돛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으로 나타낸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하여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2)</sup>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2)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시 29~31번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몰들고 있었다.**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무르익은  
과실의 밀도(密度)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잠든 내 어린것들의 숨소리는  
작은 벌레와 같이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

**별들은** 나와  
자연(自然)의 구조에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

한 시대 안에는 밤과 같이 해체(解體)나 분석(分析)에는  
차라리 무디고 어두운 시인들이 산다.

그리하여 토의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

**꽃들은** 떨어져 열매 속에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그리하여 시간으로 하여금  
새벽을 향하여  
이 풍성한 밤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할 줄을 안다.

-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얻은 심리적 인상 체계나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에서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시적 상황을 암시하여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 이미지란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인 것이다.

한편 이미지의 기능으로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을 들기도 한다. 신선감이란 어휘나 소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빚어내는 새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낮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렬성이란 작품 속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을 뜻한다.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0. (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의 '별들이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31. ㉠과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가는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며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과실로서의 '밤'의 속성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으로서의 '밤'과 중첩된다.

- ① 1연의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룩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라는 것에서 과실과 시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 ② 2연의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과묵하고'를 통해 독자는 '밤'이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4연의 '해체나 분석'과 '상상'의 대비를 통해 독자는 '밤'이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4연의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6연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하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3)</sup>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역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너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  
 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너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끼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뽕뽕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  
 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끓어지고, 솟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잇도록 하는 것

3) 2018년 7월 고3 학력평가 국어 29-32번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맑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에’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한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A]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30.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31.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흠과 힘겨웠던 기억을 모두 없앴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 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켁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늪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4)</sup>

(가)

너는 서해 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뺨 발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쇄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과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려  
뺨 발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낙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짙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회췌 후리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등  
치를 타고 내려가,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  
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43-45번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다'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짙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 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4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둥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땅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댕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 정 답

###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43번 - 45번

	43	⑤	44	④	45	⑤	
--	----	---	----	---	----	---	--

###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29번 - 31번

	29	④	30	⑤	31	②	
--	----	---	----	---	----	---	--

###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29번 - 32번

29	①	30	②	31	③	32	④	
----	---	----	---	----	---	----	---	--

###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43번 - 45번

	43	②	44	④	45	④	
--	----	---	----	---	----	---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 2018년 고3 학평 &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 기출 작품 목록

### <2018년 3월 학력평가>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장석남, '살구꽃'

### <2018년 4월 학력평가>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2018년 7월 학력평가>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문태준, '가재미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 <2018년 10월 학력평가>

송수권, '대역사'

고재종,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